

## 다니엘 34 강

다니엘서 9 장 16 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러짐이니이다 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공부하다 보면 모든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간구를 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김받은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게 있습니까?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비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보면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이 비취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한번 듣고 말아버리고 그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줄 알고 살죠. 뭐 주의 종들도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내가 의로운줄 알고 책망하고 뭐 저도 어릴때 그런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막 그냥 호통을 치고 그런걸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참 사도바울이 그분이 죄인의 괴수다. 주님을 만나기 전 죽기전에 고백한 난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한게 뭐 괜히 그분이 검손을 떨라고 그런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나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게 말이죠. 교회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밟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게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더러운걸 씻어 준게 뭐냐하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느냐?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죄를 씻어주어야 하는거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이런 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받으니까. 성경은 덮어두고 종교 행위만 하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교회 가면 성경과 찬송가 책이 꽂혀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가지고 가요. 그랬다가 한 번 보면 끝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도 보면 닳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처럼.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16 절 이전까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왕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간구로 바뀝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증보와 감사를 하라고 했죠? 이게 다니엘이 기도한게 그냥한게 아닙니다. 이분이 성경을 좀 깨달은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계속 구약을 보게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계시는 점진 계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자꾸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꾸 열려요. 세상이 변해 갈수록 주님의 계시가 자꾸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북에서 로켓이 성공했다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야 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도끼로 쓴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미국같은 나라가 이북이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락하신 거예요.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거예요. 그렇기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많이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선교사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당들이 불타가지고 그루터기만 남는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뭘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어쨌다는 거야? 뭘 회개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회개할게 없어요. 교회도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올려 퍼칩니다. 기타치며 북치며 악기를 동원해서 소고치고 그러는데 아 그거는 언제? 시편 150 편은 주님이 오실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팽가리 치고 그런단 말예요. 이렇게 무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주의 의에 따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안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사도바울이 깨닫고서 고린도후서 5 장 21 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얘기에요. 옛날 노아가 구원받는 길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됩니다. 이렇게 할때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어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6 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몸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Baptism 완전히 몸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례도 말이죠.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다시말해서 뭔가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믿으라 그런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구하라는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말씀하신게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의를 따라 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백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기도응답이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되는게 아녜요. 사람들은 꼭 지금당장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따라 구하는게 아녜요. 자기의 의를 따라 구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안되면 난리를 칩니다. 왜 안되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러고.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찌뚜게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앞에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본다. 나를 믿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영영히 못본다. 나와 영원히 분리된다. 분리된 지역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이땅에 살다가 하늘에 못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알더라고요. 지하세계라 그러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성경에 지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땅의 심장이라고 그러셨죠?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속에 있으리라. 지옥까지 갔다 오신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셨지만 그의 몸이 썩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몰라요.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그분의 의로 모든것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어려움에서 자주 벗어나려고만 그래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무얼 해달라, 고쳐달라,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이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주의 노여움과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돌이켜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응답이 안됐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의롭게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거지만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기껏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주의 노여움과 분노를 돌이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의 분노와 노여움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죠. 한 이레 동안. 한 7년 정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7년이 아니라 한 7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환란때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정금처럼 되어 가지고 옴이 그랬잖아요? 나를 연단하시어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옴처럼 연단을 받을 때 이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갑니까? 난 거기에 간다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도들 보고도 아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된대요. 야 이거야말로 불속에 들어가잔 말 아네요. 왜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 자기 생각으로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멕시코의 어느 여인이 그런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했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듭났는데 거듭나가지고 기뻐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들어져요. 말씀을 못먹으니까.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를 안먹여 보세요? 또 우유만 먹입니까?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밥 과일 채소 vitamin 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더 크면은 스테이크도 줘야 하고 이래 가지고 크는데 안주니까 시들시들한거예요. 우리 AA 미팅에 오는 어느 자매가 거듭났냐니까? 아 거듭났대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못먹어서 시들시들한거라고. 그래서 술이 더 좋았던거라고. 우리 사이트를 알려 줬더니 눈이 뚱그라졌어요. 우리 사이트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니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먹었으면. 얼마나 못먹었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들어서 하는 기근이라 그랬죠? 왜 배고픈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냥 소리를 질렀죠. 결국 그것 때문에 대환란때 핏값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A.D 70 년에 로마 디도장군이 와 가지고 일부를 갓았죠. 유대인들 500 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성전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한걸 또 한번 되게 되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더 심하게 합니다. 그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내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목베임 당할거야. 그렇게 합니다. 또 내 표를 받아야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해. 지금 그때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모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돈이 들더라도 복음 방송에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못하게 합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욕한대요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할 때도 사장님이 안내방송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니엘서 하면 괜찮을거예요. 다니엘서 하다보면 요한계시록 다튀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할거예요. 난 돈내고 방송 안하거든요. 왜 돈을 내고 방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7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여기보면 이스라엘 좀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알거든요.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바벨론 로마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런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거든요. 회복을 간구하는거죠?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라 복달라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8 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때문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우린 죄지은 거밖에 없습시다. 그러나 자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대로 된 간구죠? 오늘날 보면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목사님들은 아! 내가 주의 일을 수십년 했어요. 나를 보시고 해주세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간음같은 것을 해도 괜찮대요. 허이구. 말도 못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들도 다시 세우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가지고 자랑을 하죠. 행위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라면 몇박스 갖다주고 신문에 나면 상을 받은 거예요. 커뮤니티에 백만불 줘가지고 신문에 나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듣지도 않아요. It's good for you. 미국 사람들은 그러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거야. 그러나 나하고 상관은 없어. 사람들은 뭘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 말씀 좋습니다 이런 칭찬듣고 싶은 맘이 있잖아요? Good for you.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이걸 피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설교하면 아 말씀 좋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선포하면은 욕이 더 많죠.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19 절 보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요즘 이걸 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들 많이하죠?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밖에 나가 전도할때 다운타운 나가서 주여 주여 주여 세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주여

삼창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것, 우리도 부르짖어야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때 나는 말하지도 못하고 말도 느끼고 혀도 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당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보고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오 주여 주여 주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죠? 그때 모세는 미리암이 낮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오 나의 하나님이며 간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라고 뭐 별납니까? 다 그렇고 그렇죠. 지나고 보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도 뭐 그렇고 그렇네요. 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보면 당신 주님을 뵈 본다고. 지금까지 나를 봤냐고?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목사를 보고 교회오면 다 나가요. 실망하죠? 아니 모세 보고도 실망했는데 뭘. 허허허. 예수님 보고도 실망했는데. 인간으로 나타나니까. 오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옛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다윗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집과 네 왕국이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런 말을 듣으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므로 오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니 이는 우리가 귀로 들은바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계속 불렀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하잖아요.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죠. 당연히 부르죠. 그런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부른다고요. 또는 급하면 오 갓! 그래요. 더 급하면 마이 갓! 어떤 사람은 그냥 갓!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우 노! 이라고. 재클린 여사가 그랬죠? 하나님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오 노우! 시간이 있을땐 오 마이 갓!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르는건 불평하는 겁니다. 암이 걸렸을때 why me oh my God. 이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날 암이 걸리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암이 걸려도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맏소사. 왜 날 이렇게 하냐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말이야? 하나님이 이럴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부르는 반면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게 없어요.

저도 20년을 사역을 하면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아 나같은 죄인을 구원해준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게

없어요. 어제도 자는데 옛날에 내가 죄지은 것을 주님이 보여 주시더라고.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의 괴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우리가 행했던 것을 보여줘요. 마귀에게 보여주도록 허락을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자신을 억제해서 매일 복종시킨다는게

그거예요. 자신이 지었던 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나는 이런 자였고 이런 자였고...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시저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책망하고

율법적으로 나가니까 목사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소서. 호소하는 거죠.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러

짐이니이다. 이걸 주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라. 너 부인 있지? 아이 낳으면 되지 않느냐? 모세가 막 그냥 바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노아처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지금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church of God 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게 없어야 돼요. 사람만 많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교육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모든 제도가 들어와 있고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신으로 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거듭나지 않은 교회들이 다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르죠? 마찬가지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안 전해 지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때서. I'm OK. I'm all right.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I'm aii right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right 라는 말은 나는 의롭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 righteous 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justify 가 돼야 해요. 우리는 wicked 하고 vile 인데 악한데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인정해 줄께. 다른 사람은 인정 안해 줘도 내가 인정해줄께.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all right 하단 말은 내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영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OK, all right 란 말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좋은 말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말한단 말예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죽였잖아요. 그 죄값을 치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삼년반에 성전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거다. 그때 빨리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옷 가질러 내려가지 말아라. 아이 밴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가라 할때 flight 라고 되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하거든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는 비행기 타고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면 꼼짝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6 일전쟁도 안식일 전에 끝나게 해주신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말도 못하게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영영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대환란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유대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요. 듣기 싫으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시옵소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정만 많으면 오케이야. 재정이 없으면 난리고. 돈만 있으면 오케이. 이걸 돈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가까운데 걸어가면 될거 아녜요. 꼭 비행기 타고 가야 합니까? 주님이 돈 주고 가라면 가야죠. 그러나 이웃집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하냐고요. 여기서 모슬렘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여기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전도를 해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말을 못하니까 이수에스 예수 예수하니까 그냥 그러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끌어 안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거지 말 잘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해야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던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의를 따라 행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